추경예산 숫자 놀음과 말잔치

김승호의 시선

요즘 서울 명동이나 종로 거리를 지나다보면 빈 상점들이 지천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버티다 버티지 못한 가게들이 하나 둘씩 문을 닫은 후 빈 공간을 채울 이들이 없기 때문이다. 그 잘나가던 상권들도 이 모양인데 다른 곳은 오죽할까 싶다.

그렇다고 건물주들이 새로운 임차인을 맞기위해 임대료를 대폭 낮춰 환영할 일도 만무하다.

그 긴 코로나의 터널속에서도 '한번 내리면 올리지 못한다'며 버티기를 했던 임대인들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고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에게 나눠주는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371만개 사업체에게 차근차근 전달되고 있다.

6일 현재(오전 10시) 332만4000곳에 총 20조1943억원이 돌아갔다.

그도 그럴 것이 문재인 정부 시절 총 7차례의 재난지원금을 나눠주면서 충분히 시행착오를 거쳤기에 시스템 오류 등 무리될 것은 없었다.

그런데 새 정부가 꺼내든 소상공인 지원금이 참 요상하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었다.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인수위가 작성한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1번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내세웠다.

약속대로라면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를 위해 고통을 감내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윤 정부는 '50조원+α'의 돈으로 '온전하고 완전한' 손실보상을 했어야한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소상공인들에게 약속한 '소급적용'도 했어야 한다.

새 정부 출범 후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추경 규모는 62조원이다. 이는 당초 정부안보다 2조6000조원 늘어난 액수다. 액면만 놓고보면 윤 대통령이 약속한 '50조+α'보다 많은 액수다.

하지만 내면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62조원의 추경에는 지방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재정을 위한 법정지출 23조원이 포함돼 있다. 이 23조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 지방교육 등을 위해 쓰는 예산이다.

엄밀히 말하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일부에선 지방정부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예산으로도 쓴다고 항변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말이 아니고 방구다.

결국 62조원에서 23조원을 뺀 일반지출 39조원이 그나마 소상공인과 관련이 있는 돈이다.

그런데 39조원도 뜯어보면 23조원의 소상공인 직접 지원금 외에도 진단검사비, 치료비 등 방역보강을 위해 쓰겠다는 7조1000억원과 취약계층 생활안정, 생활물가 안정 등을 위한 2조2000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예산은 이번 추경에선 28조7000억원 밖엔 되질 않는다.

약속했던 '소급적용'도 없다. 추경 결정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단체가 "소급적용을 통해 온전한 손실보상 약속을 지켜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소급적용이 아니다'는 평가에 대해 대통령실은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소급적용되는 손실보상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해명했다. '사실상'이란 말은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게다가 대통령실의 언급대로 법적 개념인 '손실보상금'도 어느새 '손실보전금'이란 이름으로 바뀌었다.

공교롭게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나눠주기 시작한 손실보전금은 신청자가 몰리며 매우 빠르게 소진됐다. 그만큼 급하고 애가 탔던 소상공인들이다.

이젠 지방선거도 끝이 났다.

그런데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숫자놀음과 말잔치만을 보고 들을 수만은 없다. 시간도 너무 없다.

새 정부가 이제 할 일은 자명하다.

/bada@metroseoul.co.kr

한솔제지가 오픈한 가상전시관 로비 전경.

"가상 전시관서 종이 정보 확인하세요"

한솔제지, 온라인 전시관 오픈

한솔제지가 'Hansol Thermal & Label 온라인 가상전시관'을 열었다.

6일 한솔제지에 따르면 제지 업계 최초로 오픈한 가상전시관은 메타버스 공간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플랫폼 기업 올림플래닛과의 협업을 통해 구축했다.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다양한 종류의 종이 제품들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해당 가상전시관은 일상에서 널리 사용하는 영수증, 라벨, 티켓 등에 사용되는 감열지를 주제로 하며 관련 제품들에 대한 정보는 물론 공정 과정까지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시관의 배경에 서울의 모습을 구현해 가상전시관임에도 마치 실제 현장에 온 것 같이 생생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으며 ▲로비(리셉션) ▲쇼룸 ▲컨퍼런스홀 ▲미팅룸 등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했다.

우선 전시관에 방문한 소비자가 처음 만나는 로비에선 한솔제지 소개 영상과 한솔제지의 다양한 감열지 제품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E-브로셔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쇼룸을 통해선 감열지의 생산공정과 제품 품질 테스트, 다양한 적용사례 등을 영상으로 접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청호나이스, 아파트아이와 제휴상품 출시

청호 에스프레카페 렌탈시 캐시적립

청호나이스가 아파트 홈서비스 플랫폼인 '아파트아이'와 제휴 상품을 출시했다.

6일 청호나이스에 따르면 제휴 상품으로 내놓은 제품은 가수 임영웅을 모델로하는 얼음나오는 커피머신 '청호 에스프레카페'다.

아파트아이 앱을 통해 해당제품 렌탈을 신청하면 월 3만원씩 12개월간 총 36만원이 아파트캐시를 적립한다. 적립한 캐시는 아파트아이에서 관리비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다.

아파트아이는 관리비 조회 및 납부, 통계, 다양한 할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 홈서비스 플랫폼으로 해당 앱을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중기부, 수출 유망 中企·소상공인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갈 유망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2022년 '수출유망중소기업' 및 '수출두드림기업'을 모집한다.

6일 중기부에 따르면 200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수출유망중소기업은 전년도 수출액 50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 가운데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20개 수출지원기관의 해외 마케팅 및 판로 개척, 금융 관련 우대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수출지원사업에는 중기부 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KOTRA,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농협이 두루 참여하고 있다.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중기부 등 6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수출바우처, 수출컨소시엄과 같은 수출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등 우대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김승호 기자

대기오염물질 줄인 콘덴싱보일러 '관심'

경동나비엔, 숨어있는 열 활용
질소산화물 배출 양 79% 줄여

6월 5일 '환경의날'을 맞아 질소산화물(NOx)과 이산화탄소(CO_2)를 적게 배출하는 저녹스보일러에 대한 관심이 다시한번 높아지고 있다.

6일 경동나비엔에 따르면 일반 보일러는 난방 중 생기는 120도 이상 고온의 배기가스를 대부분 그대로 배출한다. 반면 콘덴싱보일러는 숨어있는 열을 흡수해 난방과 온수에 다시 한번 활용하고 45도 안팎의 낮은 온도로 가스를 배출시킨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배출하는 질소산화물 양이 일반 보일러 대비 79% 정도 낮아지기 때문에 콘덴싱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라고도 부른다.

경동나비엔은 아시아 최초로 콘덴싱보일러를 개발한 회사다.

건강을 위협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선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것이 해법이다. 질소와 산소의 화합물인 질소산화물은 1급 발암물질이다. 연소과정에서 공기 중의 질소가 고온에서 산화돼 발생하기 때문에 주로 공장이나 자동차, 보일러 등에서 배출된다고 알려져 있다.

경동나비엔의 콘덴싱보일러가 설치된 거실.

질소산화물은 광화학스모그 및 미세먼지를 만들어 내기도 하며 산성비의 원인으로 건물의 부식과 토양 및 식물의 산성화를 초래해 여러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다.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며 자극성과 산화력이 강해 사람의 눈과 피부를 자극하고 호흡기 질환을 유발해 폐에 염증의 원인이 되는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오존 역시 질소산화물이 주된 발생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도 화석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이다. 전체 온실기체 배출량의 77%를 차지할 정도이며, 발전소의 전기 생산, 비행기, 자동차 등을 통한 이동,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사용 등 인간 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이처럼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인 질소산화물과 이산화탄소를 생활속에서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콘덴싱보일러 사용이다.

실제 콘덴싱보일러는 대기 오염 물질 저감 효과가 크고,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 원인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크게 감소시킨다.

/김승호 기자

버스티비 뉴스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남자 n번방' 김영준, 징역 10년 확정될듯…상고장 미제출
▲화물연대, 오늘 '총파업'…안전운임제 확대·일몰제 폐지 쟁점 /사진 뉴시스

▲'라임' 김영홍 회장 측근 입국…경찰, 출국금지
▲"K백신 생산기술 노하우 전수" 아태 개도국 대상 교육

▲대법 "위드마크로 알코올농도 추정땐 피고인 유리하게" /사진 대법원
▲코로나 확진 5022명…월요일 기준 20주 만에 최저